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9.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튀르키예, ISIS 소속 테러리스트 용의자 12명 체포
 - 8.24 언론은 튀르키예 경찰이 부르사 지역에서 테러단체 Daesh*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12명을 체포하였으며, 체포과정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한 대량의 디지털 자료를 압수하였다고 보도
 - * Daesh는 '극단주의 단체'라는 뜻으로 이슬람국가(ISIS)를 아랍식으로 표현한 용어
- 프랑스, 교내 이슬람 전통 의상 착용 금지 추진
 - 8.27 「아탈」 교육부 장관은 다음 달 4일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장들에게 교내 이슬람 전통 의상 '아바야' 착용 제한에 관한 국가 차원의 명백한 규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발언
 - * 프랑스는 이미 교육과 종교 분리 원칙에 따라 무슬림 여성 머릿수건 '히잡' 착용을 금지

미주

- 美, 충전소음에 '유독물질 테러'한 화학 전공 중국인 유학생 기소
 - 8.27 언론은 美 플로리다주에서 화학을 전공한 중국인 유학생이 충전소음 분쟁으로 아파트 위층 현관문에 주사기로 유해화학물질*을 주입, 화학물질 살포·규제 약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
 - * 마취제의 일종인 메타돈과 히드로코돈으로 불안과 복통, 구토, 호흡곤란, 피부자극, 가슴통증, 설사, 환각, 실신 등의 부작용을 유발
- 美 대통령, 흑인 혐오 총격 사건 관련 백인 우월주의 비판
 - 8.27 「바이든」 대통령은 흑인 혐오 총격 사건*과 관련, 백인 우월주의가 미국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, 同 사건을 “잠재적 중요범죄 및 폭력적 극단주의 행위로 조사 중”이라고 발표
 - *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한 마틴루터킹 연설 60주년에 「팰미터(21세)」가 플로리다주 소재 상점에서 총기를 난사해 흑인 3명이 사망하고, 범인은 스스로 자살(8.26)

아 · 태평양

○ 홍콩,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감형 불인정

- 8.28 외신은 홍콩 중심법원(대법원格)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유죄 인정에 따른 감형을 요구하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해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불확실성을 조성했다고 보도

※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·테러활동 등 4가지 범죄를 처벌하며, 중심법원은 '유죄에 따른 감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에는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

○ 파키스탄, 지난 8월 편자브州에서 테러리스트 42명 체포

- 8.28 파키스탄 대테러부는 편자브州에서 1,000회 이상의 수색작전을 통해 지난 8월 한달동안 테러리스트 42명*을 체포했으며, 이들은 모두 테러활동에 가담하거나 국가 전복활동을 계획한 자들이라고 발표

* TTP 출신 8명, ISIS 출신 3명, 알카에다 출신 2명 포함

○ 韓,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

- 8.30 경찰은 총기·화약류·도검 등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 및 강력범죄 등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,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9.1~30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후 집중단속 할 계획

※ 자진신고 기간 內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화약법(70조)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함

아프리카

○ ISIS, 西아프리카 말리에서 세력 두 배 확장

- 8.28 UN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ISIS의 분파인 ISIS-大사하라지부(ISIS-GS) 및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그룹(JNIM)이 西아프리카 말리에서 거의 두 배로 영역을 확장했다고 발표

※ 또한, 무장단체 간 충돌로 인해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말리 정부가 무장단체 간 충돌을 방관하고 있다고 분석

아프가니스탄 카불市, 차량 폭탄테러

- '19.9.2 오후 7시 45분경 아프간 수도 카불 동부 그린빌리지에서 차량 폭탄테러로 인근 주유소가 폭발해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119명이 부상
 - ※ 테러 용의자 5명은 경찰에 의해 사살
 - 그린빌리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사무실과 숙박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, 평소에도 테러단체의 주요 표적이 된 지역
 - * '19.1월에도 차량 폭탄테러로 4명이 사망하고 90여명이 부상
- 한편, 탈레반은 같은 날 오후 11시 15분경 성명을 내고 “이번 공격은 외국군을 표적으로 한 것”이라며 폭탄테러 배후를 자처
- 同 테러는 美 아프가니스탄 평화특사가 아프간 정부에 ‘美와 탈레반 평화협정 합의 초안’을 브리핑한 직후 발생
 - 전문가들은 탈레반 일부 세력이 美와 탈레반간 평화협정에 불만을 갖고 이번 테러를 자행했다고 분석

< 美-탈레반 평화협정(도하 협정) >

- '20.2.29 美와 탈레반이 9.11 테러를 계기로 촉발된 아프간戰 종식 및 域內 안정화를 위해 카타르 도하에서 체결한 평화협정
 - 美는 135일 이내 5개의 군사 기지 폐쇄 및 14개월 內 완전 철군
 - 탈레반은 알카에다 테러단체와의 절연·테러활동 금지 및 아프간 정부와 평화회담 개최 합의
- 「바이든」 美 대통령은 취임('21.1) 이후 同 평화협정에 따른 아프간 內 미군철수 방침을 고수, 같은 해 8.31 미군 철수를 완료하고 아프간戰 종전을 선언